

II

世界經濟 動向 및 展望

1. 要約
2. 主要 國家別 經濟狀況
3. 換率 및 金利
4. 原資材와 半導體 價格

1. 要 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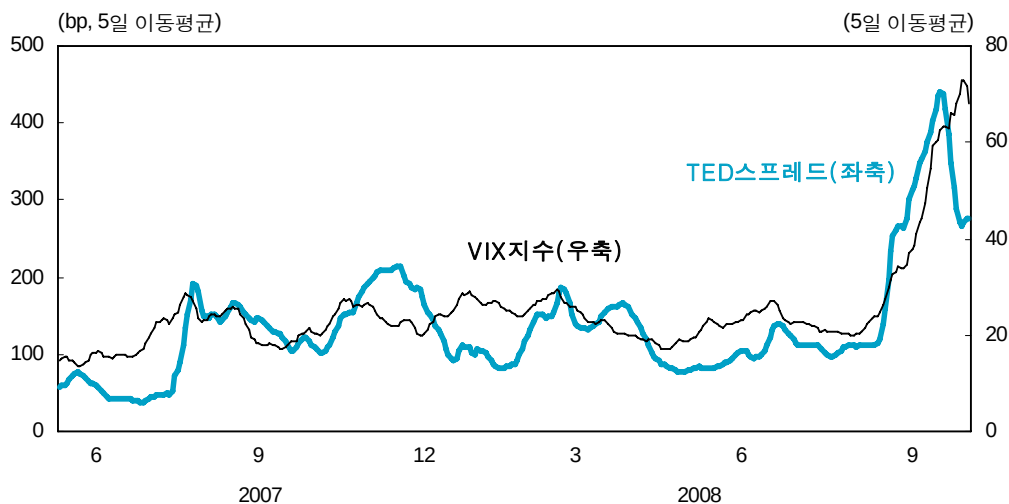
국제금융시장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급속한 하강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는 모습

■ 선진국의 대규모 구제금융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의 부진이 지속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크게 확대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대출기준이 강화되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단기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

－ 모기지 관련 자산의 손실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은행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주요 선진국의 주택경기가 크게 위축

미국의 TED 스프레드와 VIX 지수



주: 1) TED(Treasury-EuroDollar) 스프레드는 3개월 리보금리와 미국 3개월 국채수익률 간의 차.

2) VIX(Volatility Index)지수는 S&P500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

자료: 국제금융센터,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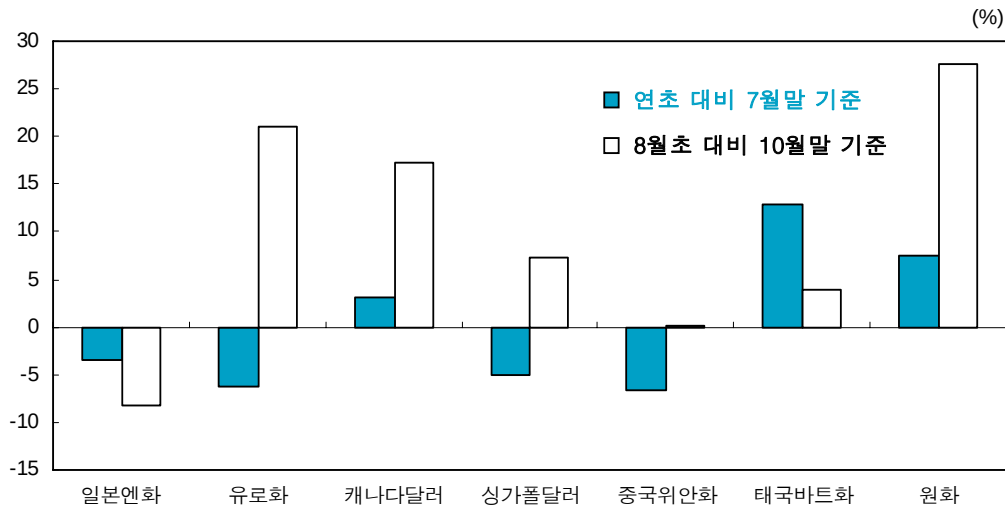
-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3/4분기까지 미국 등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금리인하를 자제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임.
-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실물경기의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주요 정책당국이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들을 발표하였으나, 금번 금융위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유로지역과 일본 등 미국 이외의 선진국 경기둔화 우려, 금융 불안 확산에 따른 개도국에서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최근 들어 주요 통화에 대해 달러화의 가치가 급등

- 다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으로 달러에 대한 엔화의 강세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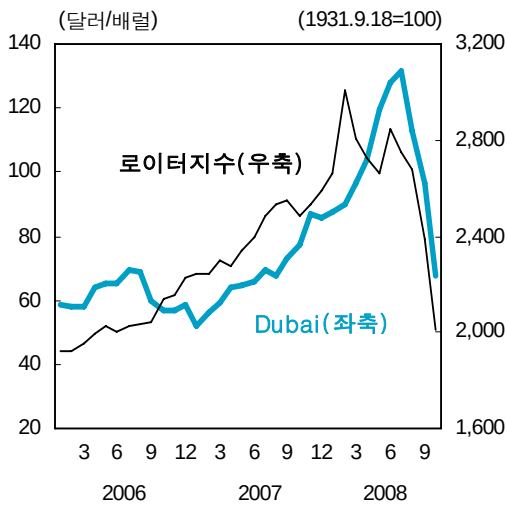
주요 통화대비 달러화 절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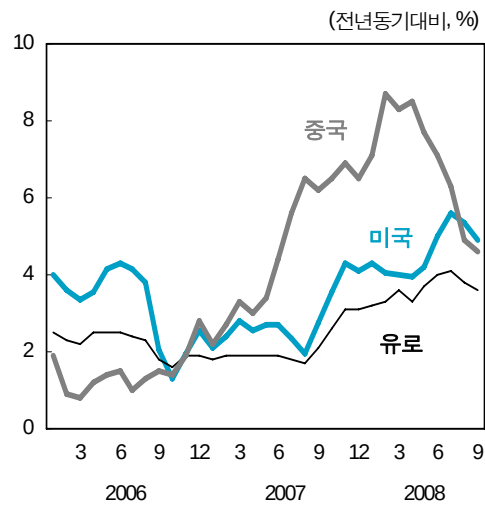
■ 금융위기가 선진국의 실물경제 침체로 연결된 가운데 해외수요 감소 및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개도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

- 투기적 수요의 증가, 달러화 가치의 하락 등으로 7월초까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확대
 - －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둔화와 달러화 강세 전환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급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

유가 및 원자재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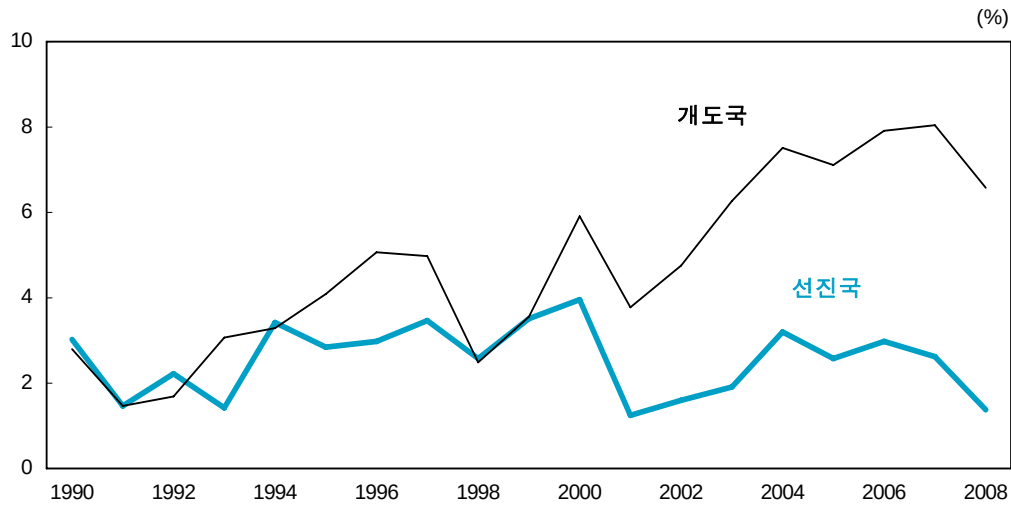
주요국의 물가



자료: 국제금융센터.

- 금융시장 불안에 기인한 미국의 경기둔화세가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던 개도국에서도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임.
 - － 유로지역과 일본의 2/4분기 성장률(전기대비)이 각각 0.2%, 0.7% 감소한 가운데 선진국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생산 증가세가 위축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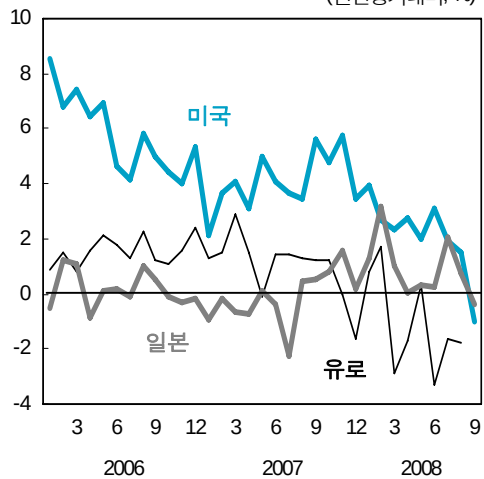


자료: IMF.

- 주가가 급락하고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용여건과 민간소비 등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주요 내수 경제지표는 부진한 모습
- 개도국의 경우에도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향후 경제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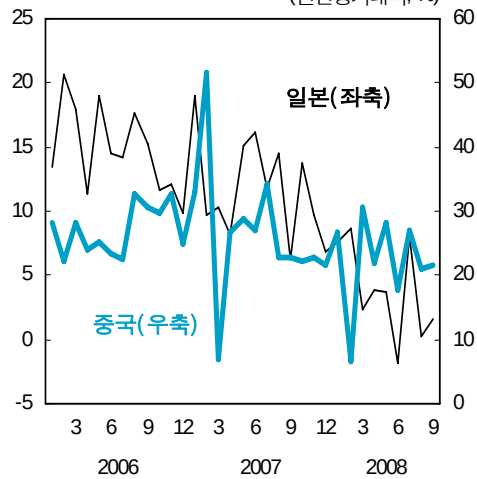
주요국의 소매 판매

(전년동기대비, %)



주요국의 수출

(전년동기대비, %)



-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과 소비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주요 경제주체의 심리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세계경제의 둔화세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원유 및 원자재 수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반면, 미국·유로지역 및 일부 아시아 신흥시장국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으로 무역불균형이 확대되어 왔음.
 - 금융위기와 경기둔화에 대응한 주요 정책당국의 유동성 공급과 부양정책 등은 향후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주요국의 2008년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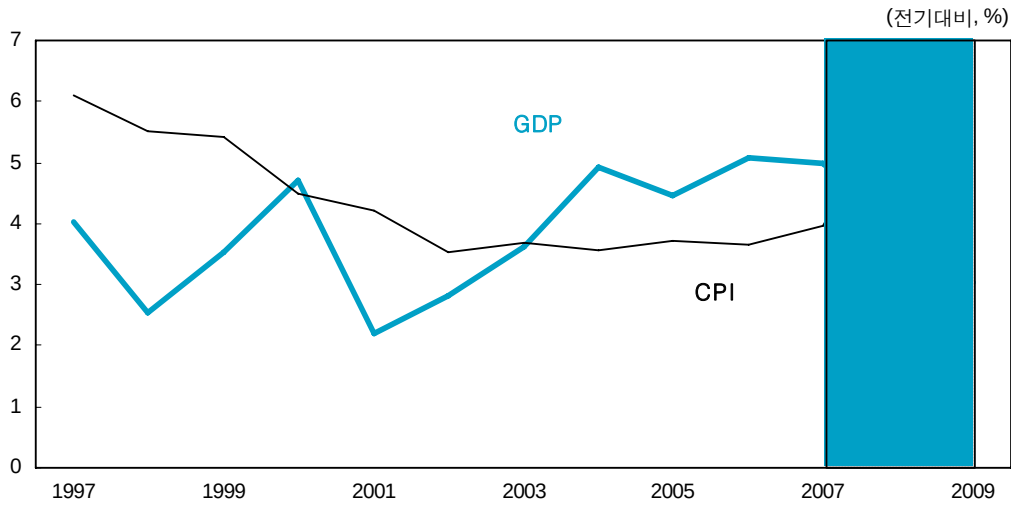
(GDP 대비 비중, %)

	미국	유로	일본	중국	한국	태국	사우디
경상수지	-4.9	-1.0	3.9	8.1	-0.4	1.7	32.1
재정수지	-3.7	-1.6	-5.5	0.3	3.2	-1.6	37.1

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2008.

- 2008년과 2009년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의 경제침체가 개도국의 경기둔화로 확산됨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
- 최근 주요 전망기관들은 금융시장의 신뢰가 상실되면서 신용경색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물가상승 위험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세계경제의 둔화세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주택시장의 조정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은 수요둔화로 이어져 선진국의 경제에 상당기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해외자금조달 및 수출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세계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지수



주: 2008, 2009년은 IMF의 전망치(2008년 10월).

-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2007년 2.0%에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6%, 0.1%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유로경제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이 장기화되고 주요 내수 경제지표들이 악화됨에 따라 2007년 2.6%에 비해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3%, 0.2%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일본경제는 여타의 선진국에 비해 금융시장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0.7%, 0.5%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둔화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이에 따른 생산 및 투자 활동이 위축되면서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9.7%, 9.3%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¹⁾

(단위: %)

	2006	2007	2008	2009
세 계 ²⁾	5.1 (4.1)	5.0 (3.9)	3.9 (2.8)	3.0 (2.1)
선진국	3.0	2.6	1.5 (1.3)	0.5 (0.5)
미국	2.8	2.0	1.6 (1.5) [1.2]	0.1 (0.2) [1.0]
일본	2.4	2.1	0.7 (0.6) [1.7]	0.5 (0.4) [1.5]
유로지역	2.8	2.6	1.3 (1.1) [1.7]	0.2 (0.4) [1.4]
독일	3.0	2.5	1.8 (1.5) [1.9]	- (0.4) [1.1]
프랑스	2.2	2.2	0.8 (0.9) [1.8]	0.2 (0.5) [1.5]
영국	2.8	3.0	1.0 (1.0) [1.8]	-0.1 (-0.4) [1.4]
개도국	7.9	8.0	6.9 (6.4)	6.1 (5.6)
아시아 ³⁾	9.9	10.0	8.4 (6.8)	7.7 (6.1)
중국	11.6	11.9	9.7 (9.8) [10.0]	9.3 (8.4) [9.5]
한국	5.1	5.0	4.1 (3.8) [4.3]	3.5 (2.7) [5.0]
대만	4.9	5.7	3.8 (3.8)	2.5 (3.5)
인도	9.8	9.3	7.9 (7.2) [7.8]	6.9 (7.0) [8.0]
중남미	5.5	5.6	4.6 (4.9)	3.2 (3.7)
브라질	3.8	5.4	5.2 (5.1) [4.8]	3.5 (3.3) [4.5]
중동	5.7	5.9	6.4 (6.5)	5.9 (4.9)
아프리카	6.1	6.3	5.9 (5.9)	6.0 (5.7)
중앙·동유럽	6.7	5.7	4.5 (4.3)	3.4 (4.1)
CIS	8.2	8.6	7.2 (7.2)	5.7 (6.1)
러시아	7.4	8.1	7.0 (7.3) [7.5]	5.5 (6.4) [6.5]

주: 1) IMF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으며, ()와 []의 수치는 각각 Global Insight와 OECD 자료에 근거.

2) IMF의 세계 전체 성장률은 PPP방식의 추정치.

3) 아시아 지역에서 Global Insight는 일본만을 제외하지만, IMF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 (선진국에 포함).

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2008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8.

OECD, *Economic Outlook*, No. 83, June 2008.

2. 主要 國家別 經濟狀況

가. 미국경제

주택경기 of 부진이 지속되고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실물경기 of 침체가 가시화 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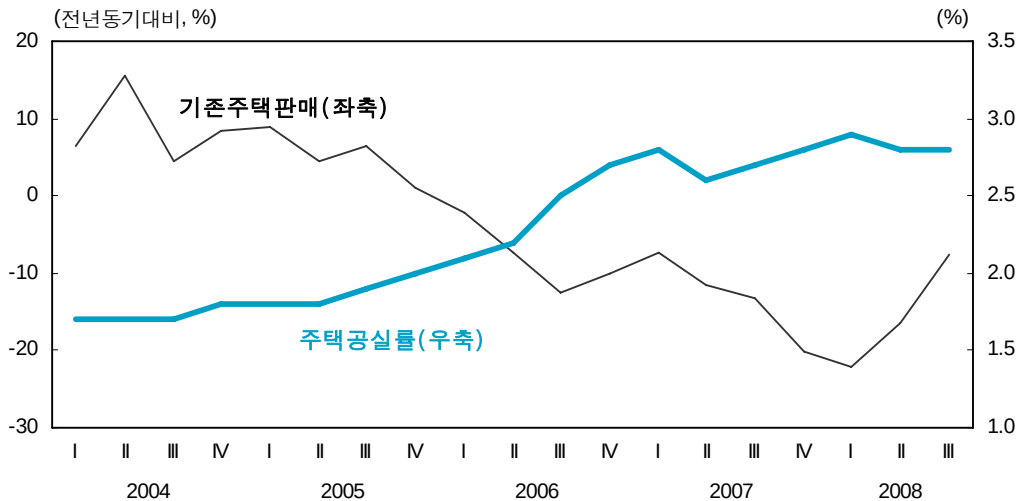
■ 주택시장 of 침체와 주요 금융기관 of 부실자산 확대 등으로 신용위기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

● 차압된 연체 모기지 담보주택 of 매물 출회로 재고주택이 증가하면서 주택가격 of 하락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주택판매 of 감소폭은 완화

－ 기존주택가격은 2007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존주택 of 판매량은 2008년 2월 이후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판매용 주택공실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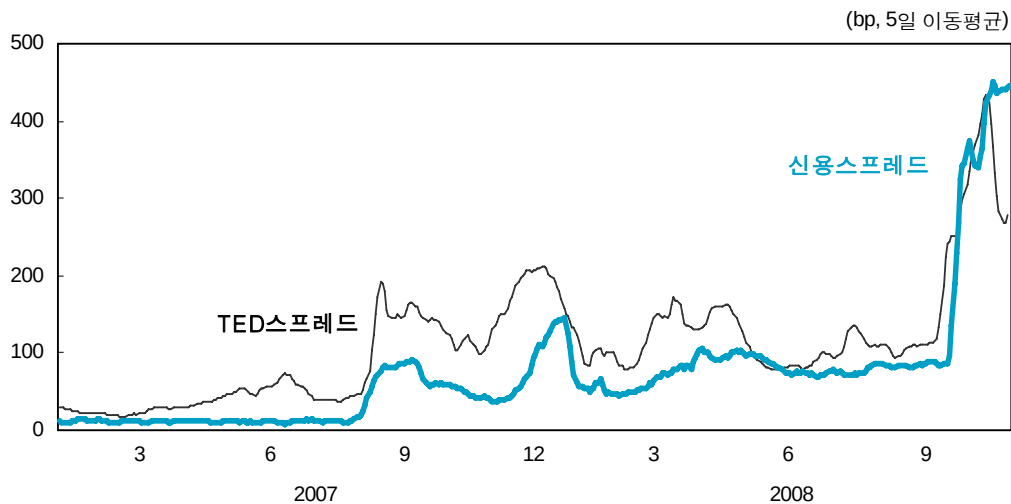
● 주거용고정투자도 2008년 3/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21.3% 감소하면서 주택경기 of 부진은 지속되는 모습

미국의 기존주택판매량과 주택공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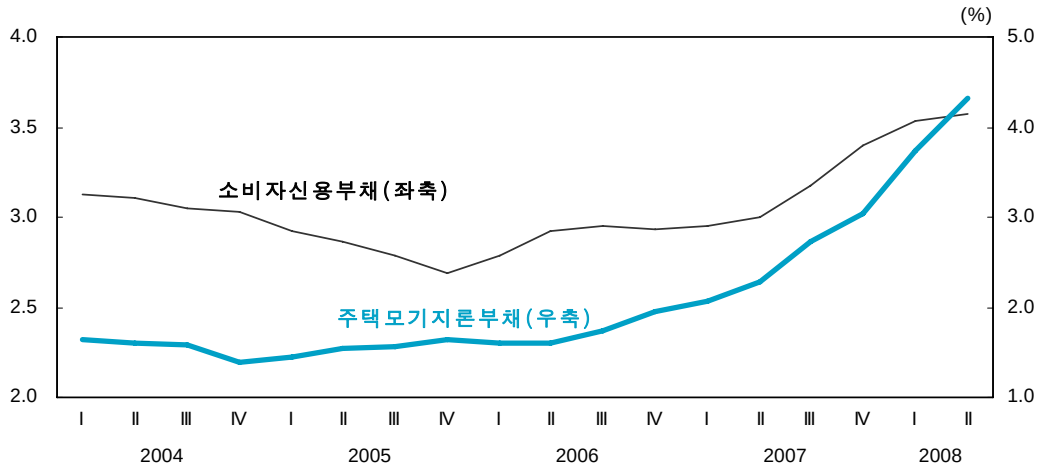
- 주택시장의 부진이 금융위기 확대로 이어지면서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등 신용경색 현상은 더욱 심화
 -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주택대출 연체율 및 모기지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TED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은 가중되는 모습

미국의 TED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



-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향후 기업의 투자활동은 위축되고 가계 소비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가계부채의 경우 주택모기지론에서 소비자신용으로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은 감소한 반면 정부에 대한 신용은 증가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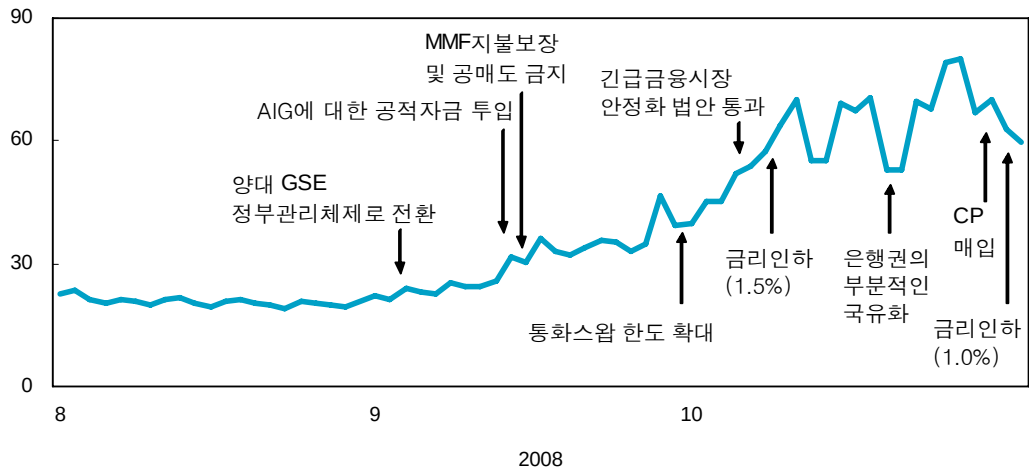
미국의 부문별 가계대출



■ 미 정책당국이 적극적인 구제금융 및 재정정책 등으로 신용경색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가운데 재정수지 악화는 지속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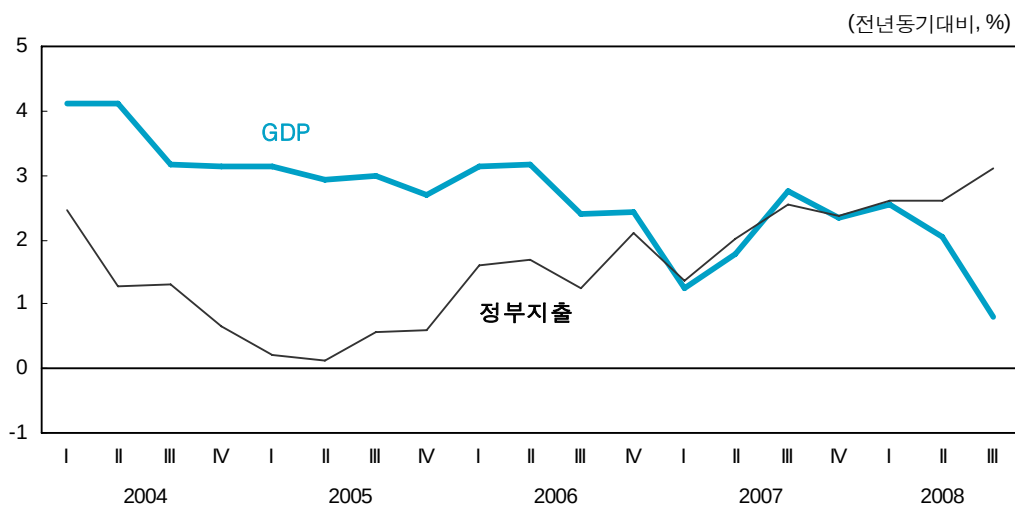
● 미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7월 중순까지 약 1,000억 달러의 세금환급을 실시하였으며, Lehman Brothers가 파산한 후 금융 불안이 더욱 확산되자 정부는 7,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하는 구제금융 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함.

미국의 VIX지수와 시장안정화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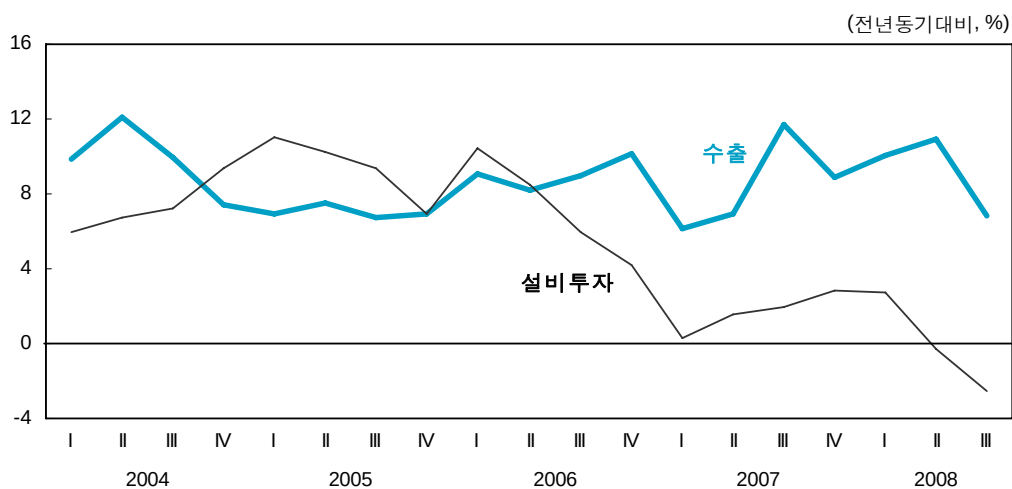
-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수개월 간 동결하였던 금리도 10월중 두 차례에 걸쳐 1.0%로 인하
- 한편, 세금환급, 구제 금융을 통한 공적자금 지원 등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1조 달러에 육박
 - － 올해 들어 경기부양과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이미 집행했거나 지출을 약속한 예산 및 공적자금이 1조 6,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미국의 2008년 재정수지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
- 한편, 세금환급 효과 및 수출 호조세 등에 기인하여 2/4분기에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이던 경제성장률은 3/4분기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
- 개인소비가 크게 하락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3/4분기 GDP 성장률은 0.8%로 지난 2001년 4/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지출도 2005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정부지출



- 특히, 세계경제의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설비투자는 감소폭이 확대
 - 경제 둔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의 수출증가율은 둔화되고 수입증가율은 감소세가 확대됨.
 - 또한, 2008년부터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되던 설비투자는 2/4분기에 감소세로 전환한 후 3/4분기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됨.
 - 설비투자의 선행 지표인 비국방자본재출하와 내구재주문도 상반기 중 대체로 감소세를 지속

미국의 수출과 설비투자



미국의 국민계정(실질)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2008		
	연간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GDP	2.9	2.8	2.0	2.8	2.3	2.5	2.1	0.8
개인소비	3.0	3.0	2.8	2.9	2.2	1.5	1.3	0.0
고정투자	6.8	1.9	-3.1	-2.3	-1.9	-2.5	-3.6	-4.8
설비	9.3	7.2	1.7	2.0	2.8	2.7	-0.3	-2.6
주거용	6.3	-7.1	-17.9	-17.0	-19.0	-21.3	-21.7	-21.3
총 수출	7.0	9.1	8.4	11.7	8.9	10.1	11.0	6.9
총 수입	5.9	6.0	2.2	2.2	1.1	-1.0	-1.9	-3.1
정부소비 및 투자	0.7	1.7	2.1	2.6	2.4	2.6	2.6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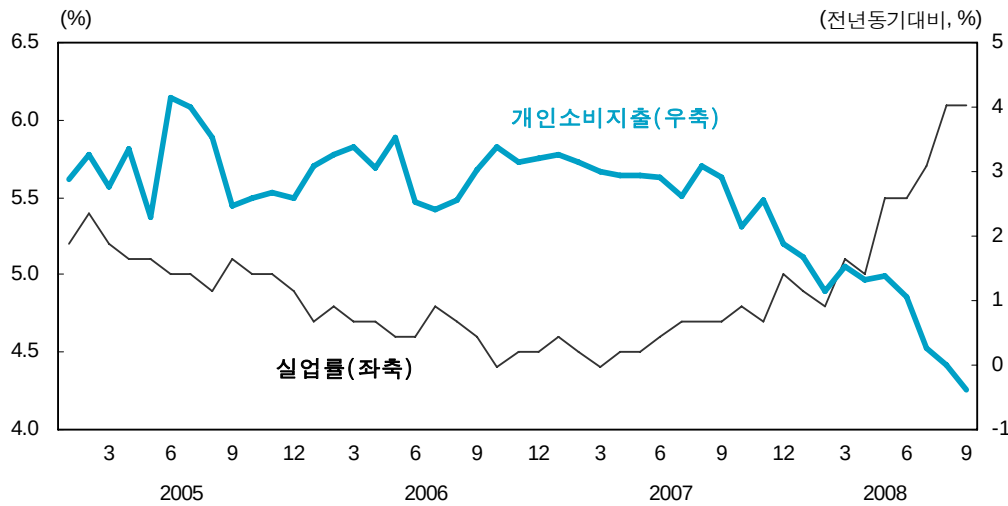
자료: 미 상무부.

■ 신규실업수당이 증가하고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고용시장은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생산 및 소비 등 주요 실물 경제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 개인소비지출은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감세효과가 소멸되면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

- 실업률은 6.1%로 연 초에 비해 급등하고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고용 시장은 더욱 악화
- 지난 2/4분기까지의 세금 환급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심리는 급격히 위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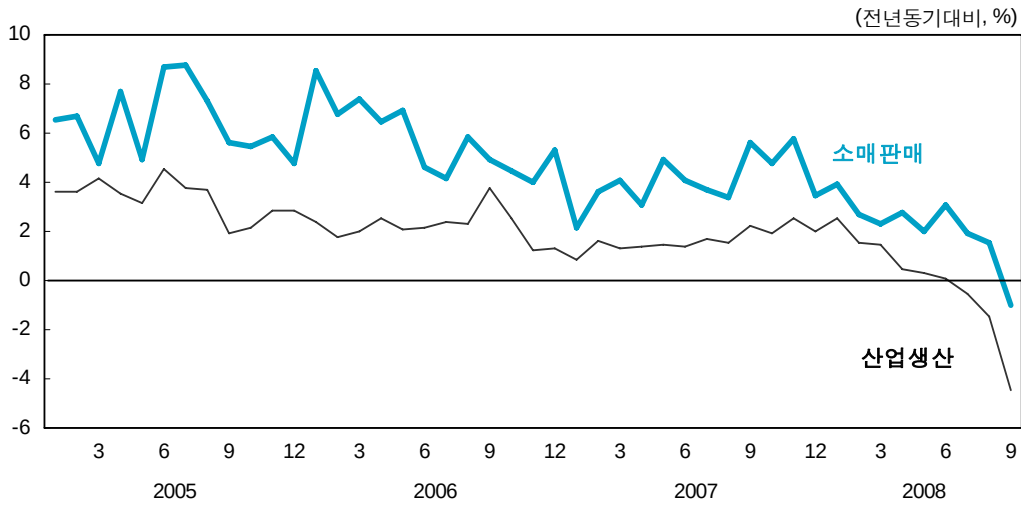
미국의 실업률과 개인소비지출



● 이와 더불어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등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

- 소매판매가 크게 감소하면서 소비 침체 가능성이 더욱 확대된 가운데 산업생산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며 기계, 운송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지표가 부진
- 비제조업지수는 비교적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제조업지수의 경우 10월중 급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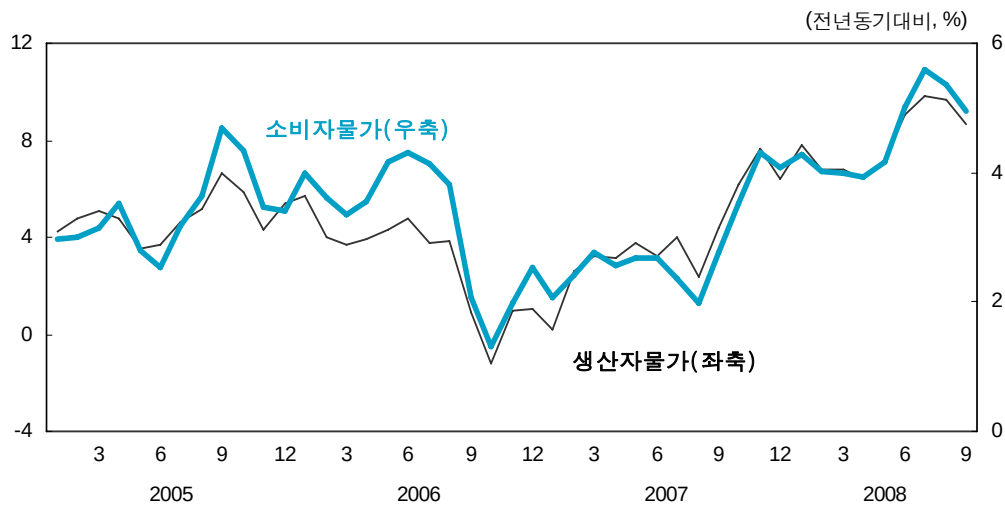
미국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급등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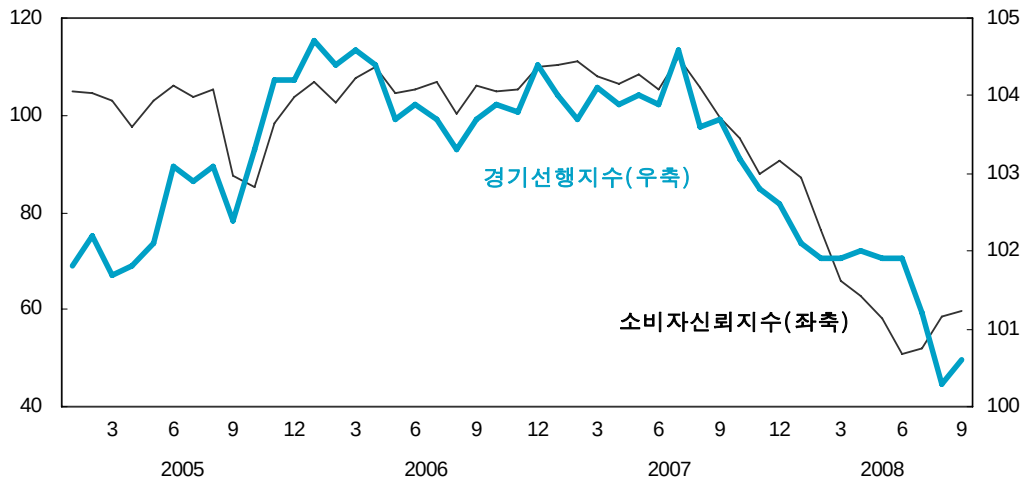
－ 7월초까지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그 이후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증가율은 소폭 둔화됨.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 한편, 소비자신뢰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등 주요 경제주체의 심리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 위축된 경기상황을 반영
 - 소비자신뢰지수와 경기선행지수 모두 최근 소폭 반등하면서 정책 효과에 따른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만 부진한 모습은 지속됨.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좌축)와 경기선행지수(우축)



- 미국은 신용 경색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경기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제금융기관들은 금년 경제성장률이 1.4%가 될 것으로 전망
- 세금환급 실시가 끝남에 따라 소비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초까지 하락세를 보인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 향후 미국 경제는 침체된 주택시장과 정책당국의 구제금융 조치의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
 - IMF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금년에 1.6%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0.1%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국제금융기관들의 전망은 이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서 대부분 미국경제의 2009년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

주요 국제금융기관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전기대비연율, %)

국제투자은행	2008		2009		2008	2009
	3/4	4/4	1/4	2/4		
Bank of America	-3.9	-2.1	1.1	2.4	1.3	-0.5
Barclays Capital	-2.5	-1.5	1.0	3.0	1.4	0.0
Credit Suisse	-2.0	-1.5	0.5	1.3	1.5	-0.2
Citigroup	-3.8	0.2	-0.9	-	1.2	-0.6
JP Morgan	-4.0	-2.0	0.0	2.5	1.3	-0.7
Standard Chartered	-1.5	-1.5	0.0	1.0	1.4	-0.3
성장률 평균	-3.2	-1.4	0.3	2.3	1.4	-0.6

주: 2008년 10월 전망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나. 유로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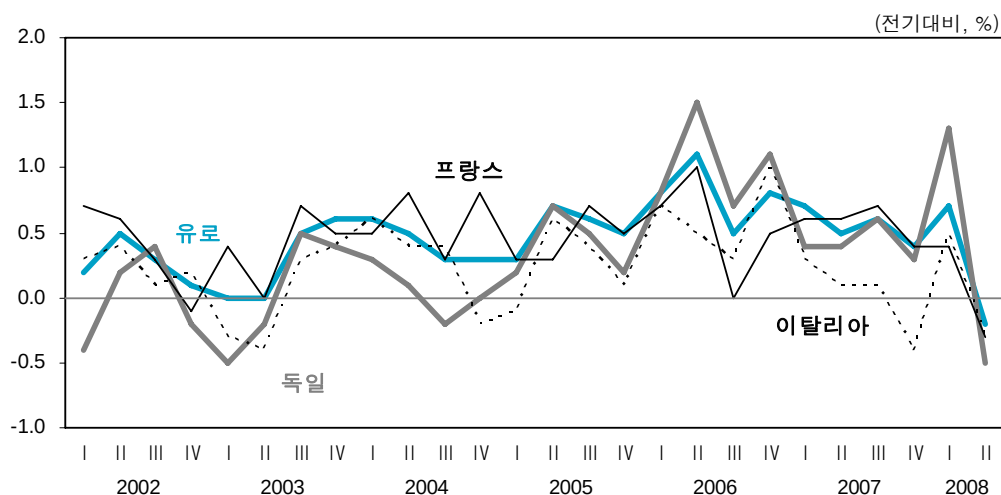
유로지역은 고물가와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인해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모습

■ 2/4분기 중 유로경제는 고물가에 따른 가계실질소득 감소, 주택경기 둔화 및 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기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유로지역내 총생산은 1/4분기 중 독일의 경기호조로 전기대비 0.7% 증가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4분기에는 전기대비 0.2% 감소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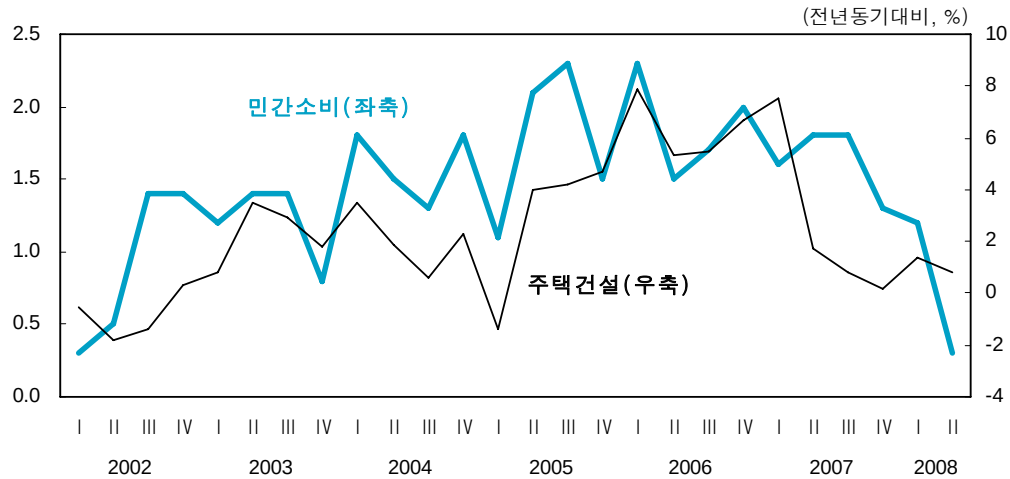
－ 국가별로는 1/4분기 성장률(1.3%)이 가장 높았던 독일의 성장률이 -0.5%로 크게 둔화되어 1998년 2/4분기 이래 최고 하락률을 보였으며 프랑스(0.4% → -0.3%), 이탈리아(0.5% → -0.3%) 등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실질)



- 고물가 지속과 신용경색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2/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2% 감소
- 고정투자 역시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투자 둔화와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으로 3/4분기 1.4%에서 4/4분기 -1.0%로 감소

유로지역의 민간소비 및 주택투자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실질)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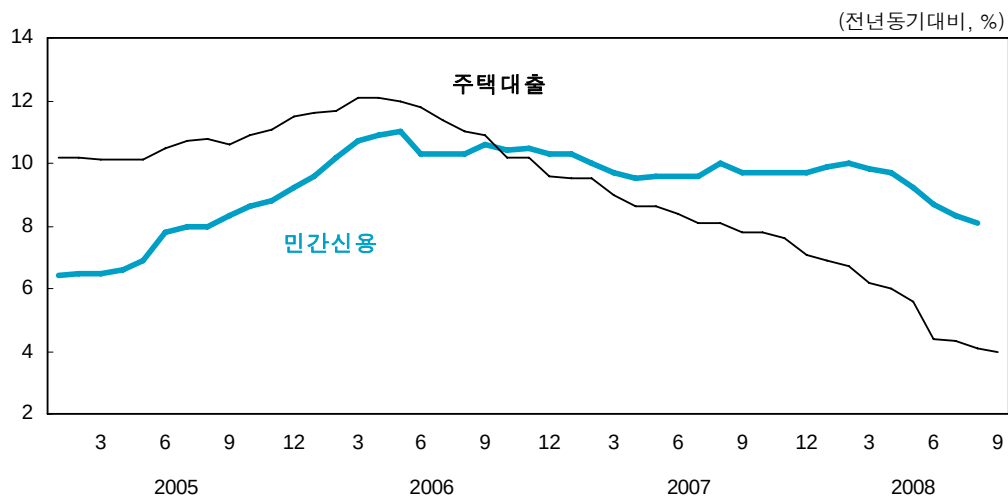
	2006					2007					2008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역내총생산	2.8	3.2	2.2	2.5	3.1	2.6	3.2	2.6	2.6	2.1	2.1	1.4
민간소비	1.8	2.1	1.5	1.5	1.9	1.5	1.6	1.8	1.8	1.3	1.2	0.3
정부소비	2.0	1.8	1.4	2.1	2.8	2.2	2.4	2.2	2.4	2.1	1.4	1.7
총고정투자	5.0	6.3	4.2	4.4	5.3	4.3	6.6	3.5	3.6	3.2	3.7	2.5
총수출	7.9	10.3	6.6	5.9	8.8	6.0	6.6	6.0	7.3	4.0	5.3	3.7
총수입	7.7	11.0	6.2	6.9	7.1	5.2	6.0	5.3	6.4	3.9	4.5	3.2

자료: Eurostat.

■ 주택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식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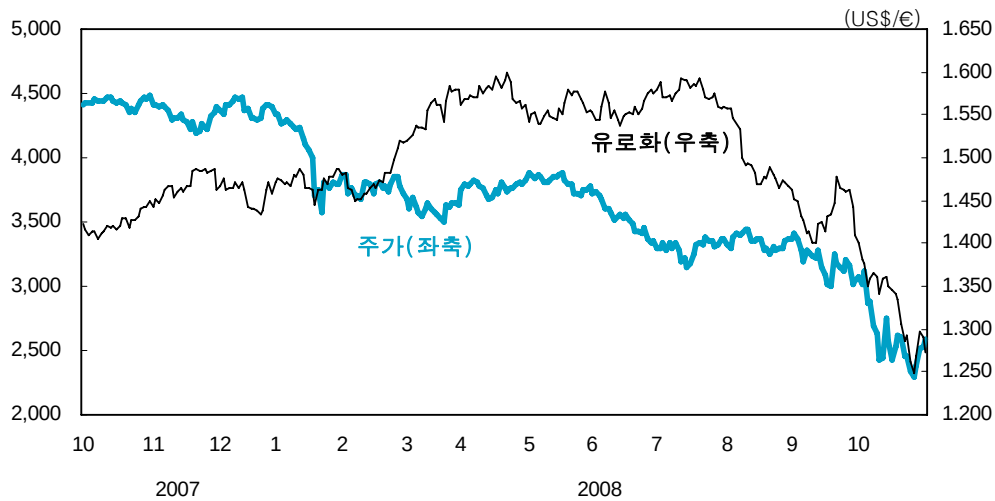
- 2007년 하반기 이후 주택경기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용경색으로 인한 대출기준 강화로 주요 신용관련지표의 증가세가 둔화
 - 8월 중 유로지역의 주택대출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에 그치며 2006년 4월(12.2%) 이후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기존의 스페인, 아일랜드 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모기지 대출도 둔화

유로지역의 민간신용 및 주택대출



-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기업의 매출감소와 차입금리 상승 및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 심화로 인해 유로지역의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로 유로화의 가치도 급락
 - 유로지역 주가(DJ EURO STOXX 50)는 현재(10월말 기준) 6월 말에 비해 22%이상 하락
 - 유로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미 달러화 수요 지속과 유럽지역으로의 신용위기 확산 및 그에 따른 ECB의 정책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8월 이후 약세로 전환
 - 한편 ECB는 10월 8일 정책금리를 0.5%p 인하한데 이어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유로지역의 주가 및 달러/유로 환율



● 신용불안이 유로지역 금융기관으로 파급됨에 따라 ECB 및 각 정책당국은 예금 보장 확대, 은행 구제금융 지원 등의 구제책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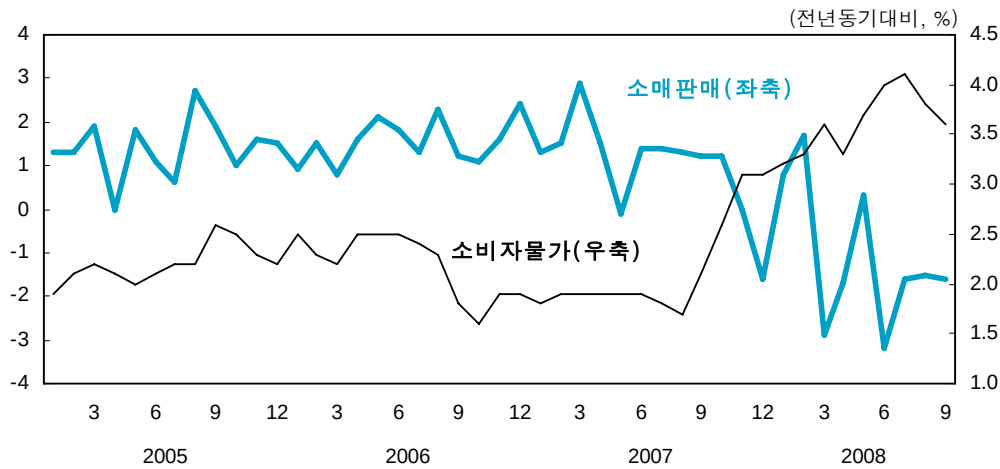
— 특히 위기해법 마련에 있어서 국가별 입장 차이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확대시킴에 따라 ECB는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국가 간 정책 공조를 강조

■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로 연결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주요 소비관련지표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실업률도 상승세로 전환

● 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금융위기 심화 및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소비관련 지표들은 하락세를 지속

— 9월 중 유로지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하며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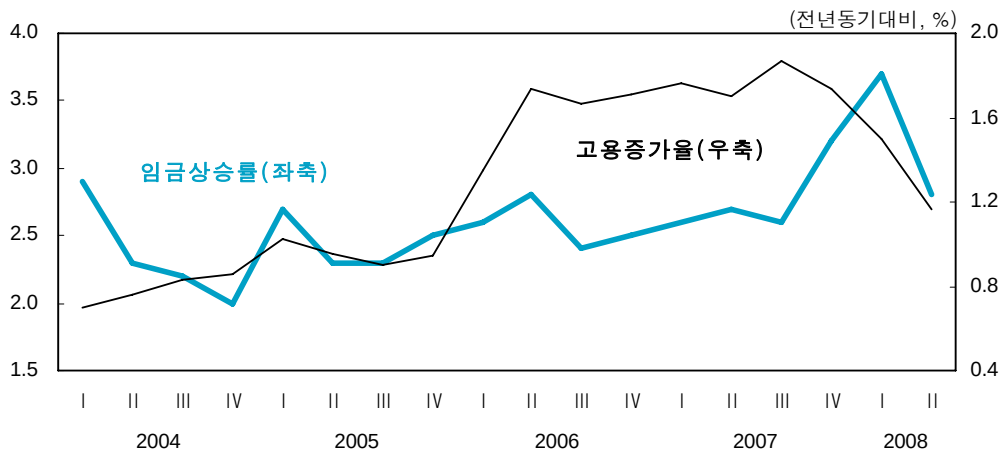
유로지역의 소매판매 및 소비자물가



● 유로지역은 안정적인 실업률이 민간소비를 견인하였으나, 최근 들어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여건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 유로지역의 고용증가율은 2008년 2/4분기 1.2% 증가하며 2007년 3/4분기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률 역시 상승세로 전환됨.
-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업 위축 등에 기인하여 스페인의 3/4분기 실업률이 4년래 최고 수준인 11.3%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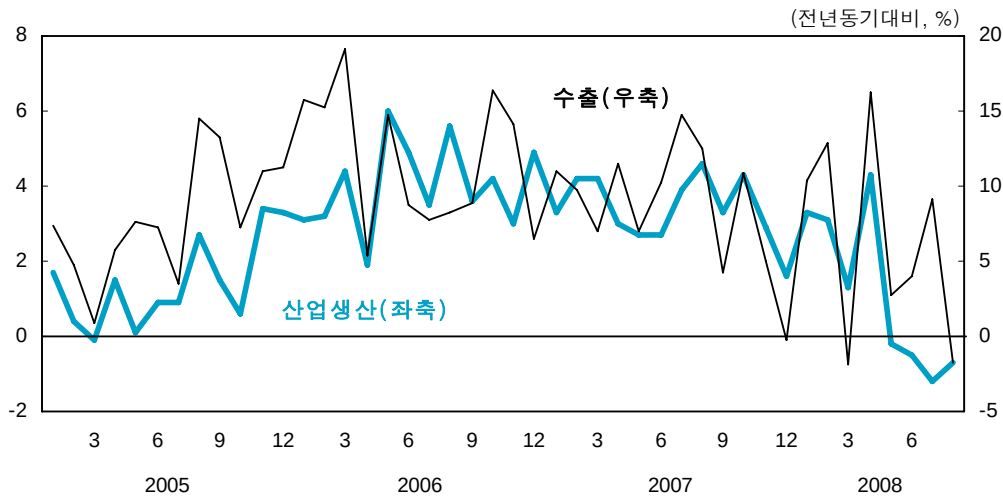
유로지역의 고용증가율 및 임금상승률



■ 이와 더불어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수출과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관련 심리지표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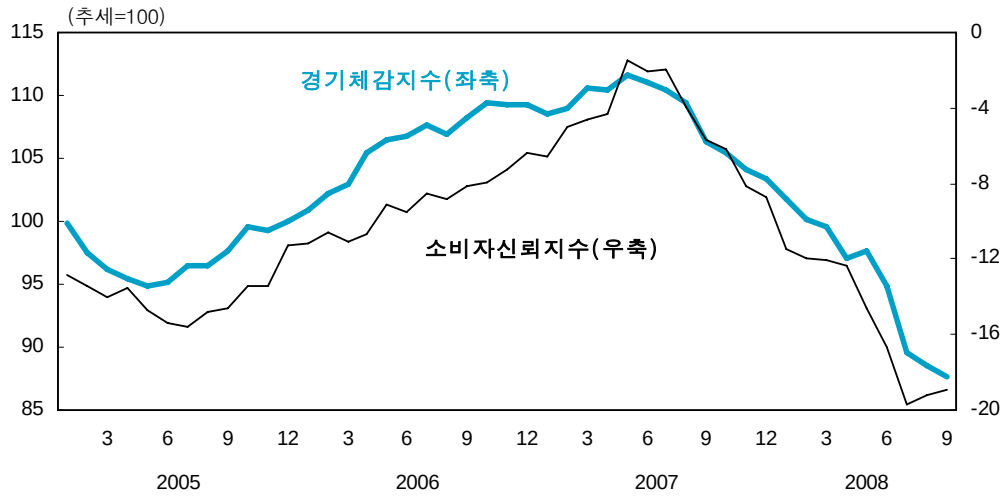
- 8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0.6% 하락하며 전월(-1.2%)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
- 또한 유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하며 전월(9.1%)에 비해 크게 하락

유로지역의 산업생산 및 수출



-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역시 45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
- 경기체감지수(ESI,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가 2007년 5월 이후 큰 폭 하락한 가운데 3월 이후 7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
 - － 고물가지속과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 구매력 감소로 인해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

유로지역의 경기체감지수(ESI) 및 소비자신뢰지수



유로지역의 경기관련지표

(전년동기대비, 지수, %)

	2007				2008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9월
경제성장률	2.6	2.6	2.6	2.1	2.1	1.4	-	-	-	-
소매판매	0.9	0.9	1.3	-0.3	-0.2	-1.6	-3.2	-1.6	-1.5	-1.6
실업률	7.4	7.5	7.4	7.3	7.2	7.4	7.4	7.4	7.5	7.5
소비자물가	2.1	1.9	1.9	2.9	3.4	3.6	4.0	4.0	3.8	3.6
산업생산 ¹⁾	3.4	2.8	3.9	3.0	2.5	1.2	-0.4	-1.2	-0.6	-
경기체감지수 ²⁾	108.4	110.0	108.7	104.3	100.5	96.5	94.8	89.5	88.5	87.5
제조업PMI ³⁾	54.3	55.3	54.2	52.3	52.4	50.2	49.2	47.4	47.6	45.0
서비스업PMI ³⁾	56.6	57.5	56.9	54.4	51.5	50.6	49.1	48.3	48.5	-
수출 ⁴⁾	8.4	8.9	9.7	5.1	6.7	7.5	4.0	9.1	-1.7	-
수입 ⁴⁾	5.6	3.6	6.4	7.1	9.4	11.2	10.8	15.4	7.4	-
M3	11.1	10.6	11.5	12.0	11.2	10.1	9.6	9.2	8.8	8.6
환율(US\$/EUR) ⁵⁾	1.371	1.348	1.374	1.449	1.498	1.562	1.555	1.577	1.498	1.437
주가 ⁶⁾	4,316	4,416	4,318	4,378	3,809	3,706	3,528	3,299	3,346	3,194

주: 1) 건설업을 제외한 전산업, 2)100 기준, 3) 50 기준,

4) 통관 기준(역내교역 제외),

5) 기간 평균, 6) DJ EURO STOXX 50, 기간 평균.

자료: Eurostat, ECB.

■ 국제금융기관들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 둔화로 전이되면서 2009년 유로 지역 성장률이 2008년 1.0%에서 -0.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주택, 주식 등 자산가격의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내수침체가 본격화되고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수출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IMF는 10월 경제전망에서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유로지역 성장률이 2008년 1.3%에서 2009년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국제금융기관들의 전망은 이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서 대부분 2009년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

주요 국제금융기관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

(전기대비연율, %)

국제투자은행	분기별				2008	2009
	08.3Q	08.4Q	09.1Q	09.2Q		
Bank of America	-1.1	-1.7	-0.4	1.2	1.1	-0.4
J.P Morgan	-2.0	-1.0	0.5	1.0	0.9	-0.5
Credit Suisse	-0.7	-0.5	-0.3	0.8	1.0	-0.3
Citigroup	-0.5	-0.5	-0.1	-	1.1	-0.2
Standard Chartered	(-0.2)	(-0.7)	(-0.2)	(0.5)	1.0	0.2
성장률 평균	-1.1	-0.9	-0.1	1.0	1.0	-0.2

주: 1) 2008년 10월말 전망 기준.

2)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국제금융센터.

다. 일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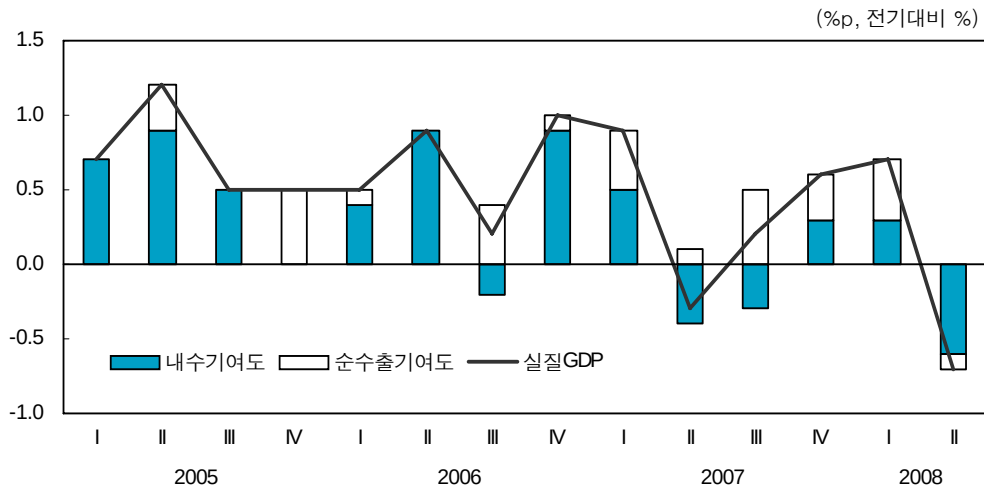
선진국 경기둔화에 따른 해외 수요 감소와 내수 부진에 따라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은 1/4분기에 회복세를 보였으나, 내수 부진 및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2/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3%를 기록하며, 2001년 3/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개인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성장을 견인해 오던 수출이 감소(전기대비 -2.5%)로 전환된데 기인
- 또한, 체감경기와 직결된 GNI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2%(전기대비 연율 -4.8%)로 1/4분기 -0.1%에 비해 크게 하락

일본의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물가 상승과 교역조건 악화로 민간소비는 부진한 가운데 설비투자도 둔화세를 지속하는 모습
 - 설비투자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여건 악화와 경기부진 전망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2분기 연속 둔화(전기대비 -0.1% → -0.2%)
- 수출은 대미 수출 감소에 이어 최근 유럽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도 부진하여 2003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내수부진으로 수입 또한 감소하여 성장에 대한 해외부문의 기여는 미비

일본의 국민계정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2.4	2.1	3.2	1.8	1.7	1.6	1.2	0.7
민간소비	2.0	1.5	1.8	1.3	1.7	1.2	1.4	0.6
주 택	0.9	-9.5	-1	-2.9	-11.5	-21.7	-16.6	-15.7
설비투자	4.3	2.1	7.1	0.1	0.3	0	-0.7	0.8
정부소비	-0.4	0.7	0.8	0.4	0.3	1.4	0.6	0.4
총 수 출	9.7	8.6	7.6	7.8	8.7	10.1	11.1	6.1
총 수 입	4.2	1.8	1.9	1.4	1.4	2.2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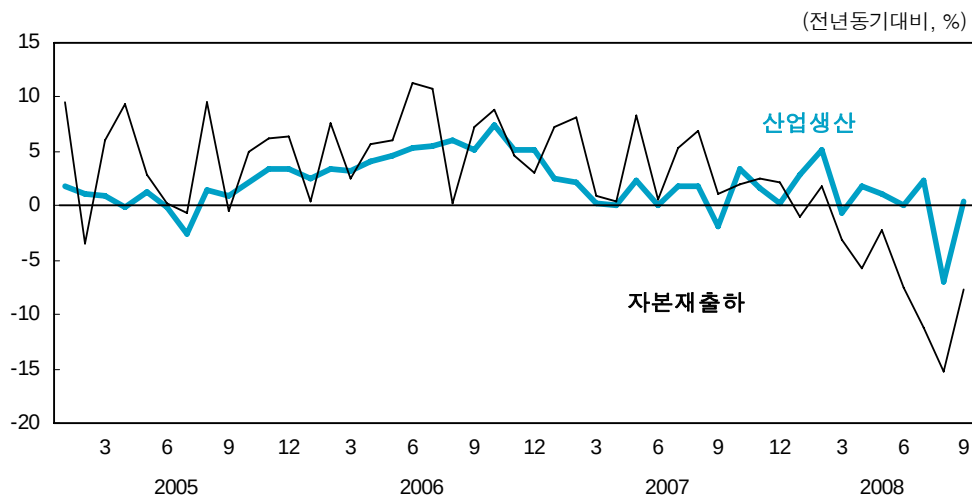
자료: 내각부.

■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투자심리는 위축되었고, 식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하여 가계의 구매력이 악화되는 등 내수지표들이 부진

● 설비투자의 동행지표인 자본재출하지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산업생산도 부진한 양상을 보임.

- 산업생산은 출하가 부진한 가운데 재고 누증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
- 또한, 경기선행지수는 2년 이상 감소세를 유지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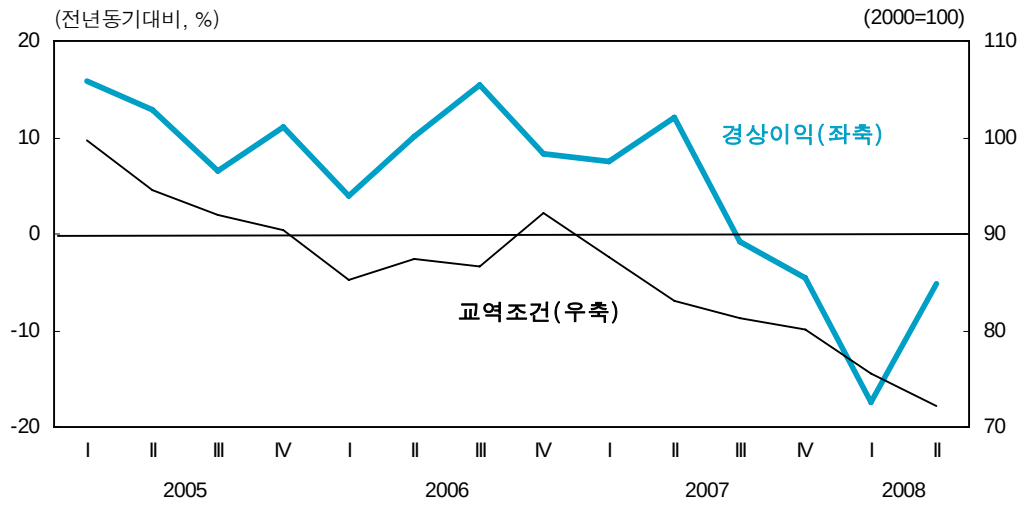
일본의 산업생산 및 자본재출하



●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법인기업의 경상이익은 하락하는 모습

-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교역조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는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에 기인함.
- 그 결과, 법인기업의 경상이익은 4분기 연속 감소하였고 이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연결됨.
- 또한, 금융 불안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전망이 불투명지면서 단칸지수는 6분기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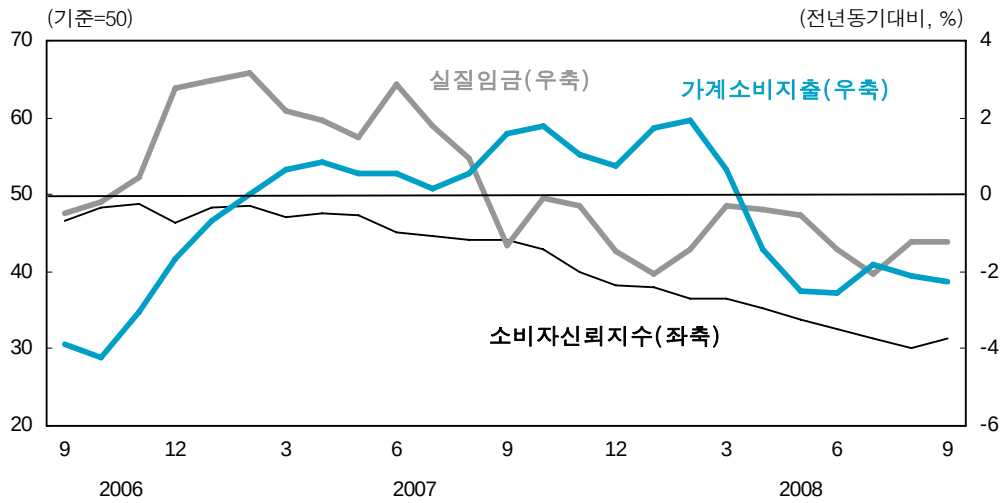
일본의 법인기업 경상이익 및 교역조건



● 소비자 물가의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소비 심리는 악화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 연평균 0% 수준에 그쳤으나, 금년에는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기인하여 2%를 상회함.
- 기업의 임금인상 억제 등에 기인하여 가계가 소비여력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소비지출 및 소비자신뢰지수는 하락추세

일본의 가계소비지출, 실질임금 및 소비자신뢰지수



주: 1) 2인이상 가구 전체 실질가계소비지출 및 실질임금.
2) 실질임금 및 소비지출은 3개월 이동평균.

● 하지만, 4/4분기 이후에는 유가가 안정되면서 교역조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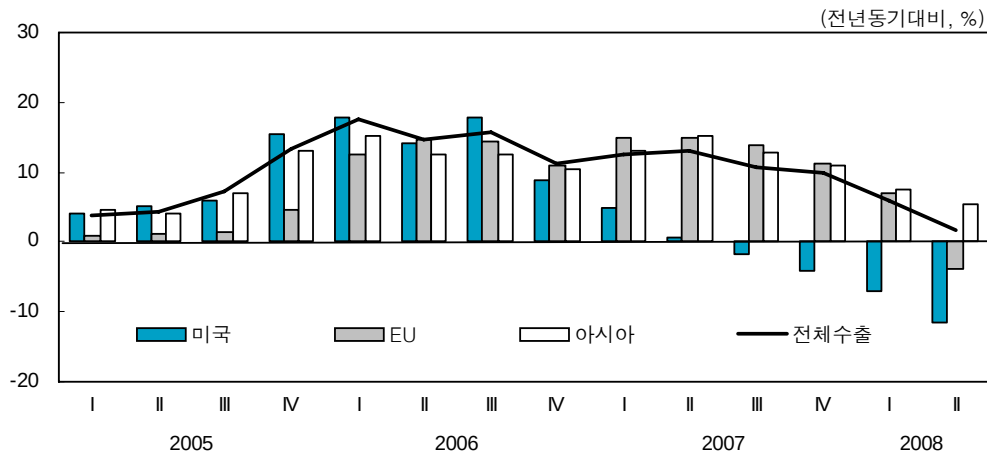
- 다만, 수입물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기업들이 가격전가에 나설 경우 소비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

■ 선진국의 경기둔화가 가시화 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어 경상수지 흑자폭은 크게 감소

● 미국에 이어 유로지역의 수출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아시아지역의 수출도 둔화되면서 전체 수출증가율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

- 2/4분기 대미수출은 -11.4%로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유로지역으로의 수출은 7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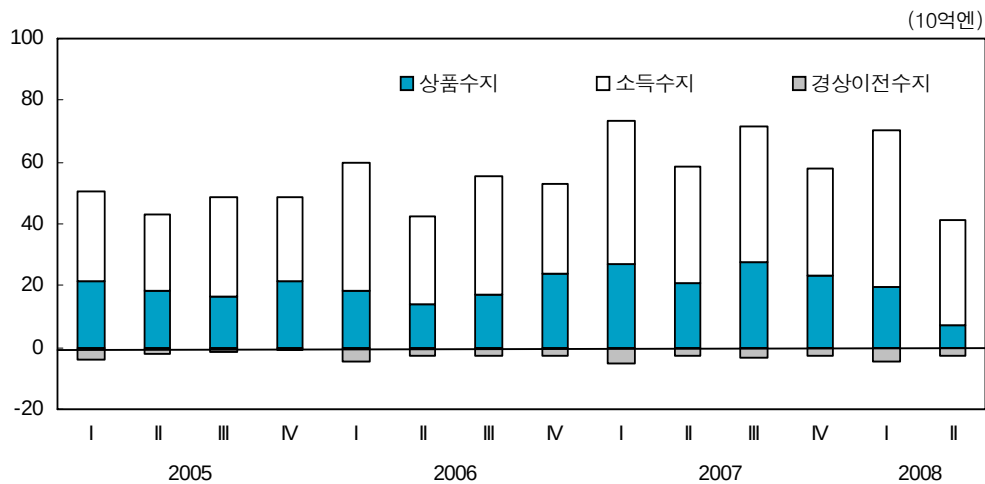
일본의 국가별 수출증가율



● 이에 반해 수입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기인하여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축소됨.

- 지난 8월 무역수지는 2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 축소분을 상쇄시키던 소득수지 증가율 또한 둔화되어 2/4분기 경상수지 흑자폭은 크게 감소

일본의 항목별 경상수지



■ 한편, 여타의 선진국에 비해 금융시장 여건이 건전함에 따라 세계 금융 불안에 따른 충격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지표들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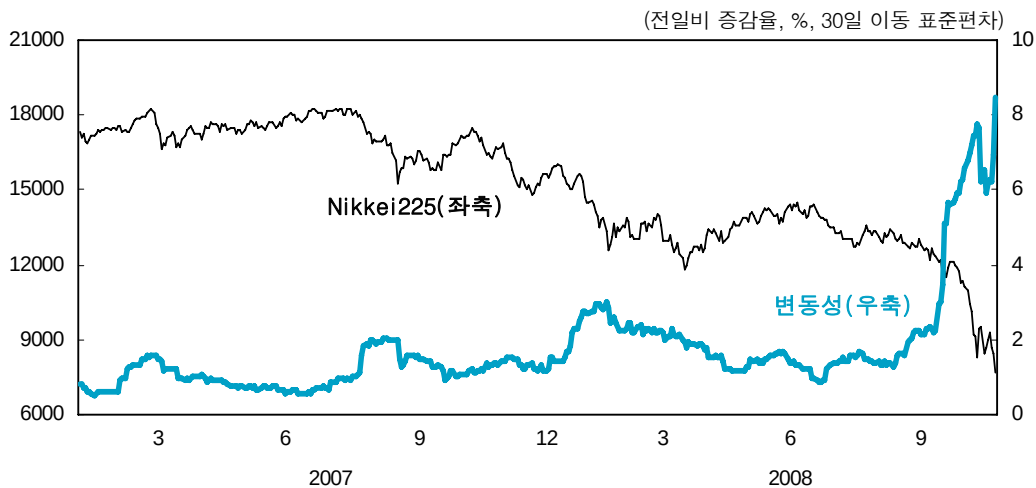
● 일본의 대외부채와 단기부채 비율은 금융 불안이 확산된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편임.

— 2008년 GDP대비 대외부채 비율(163%) 및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123%)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 확산에 따라 주가지수는 9월 이후 크게 하락한 가운데 변동성은 확대

— 또한, 금융 불안이 일시적으로 진정된 6월 국채수익률(10년)은 1.9%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하여 1.4%를 하회

일본의 주가와 변동성



● 한편, 하반기 금융 불안 확산으로 엔캐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엔화강세 현상이 두드러짐.

— 10월 중 엔달러환율은 92.8엔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엔화의 가치가 상승

■ 국제금융기관들은 2009년까지 일본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금융 불안 및 경기둔화의 여파가 개발도상국으로 이어져 대외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수출의 성장전인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실질구매력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 및 투자 감소 등 내수도 부진하여 1%를 크게 하회하는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IMF는 10월 경제전망에서 2009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했으나, 국제금융기관들의 전망은 이보다 크게 낮은 수준

주요 국제금융기관별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

(전기대비연율, %)

	2008		2009		2008	2009
	3/4	4/4	1/4	2/4		
Bank of America	-0.7	0.4	0.6	1.3	0.5	0.2
Barclays Capital	1.6	1.4	2.2	1.4	0.7	1.2
Credit Suisse	-2.5	-0.8	0.9	2.1	0.6	-0.3
Citigroup	-0.4	-0.6	0.1	-	0.6	-0.3
Deutsche Bank	-	-	-	-	0.1	-1.2
JP Morgan	-1.0	-0.5	0.0	0.8	0.4	-0.4
성장률 평균	-0.6	0.0	0.8	1.4	0.5	-0.1

주: 2008월 10월말 전망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라. 중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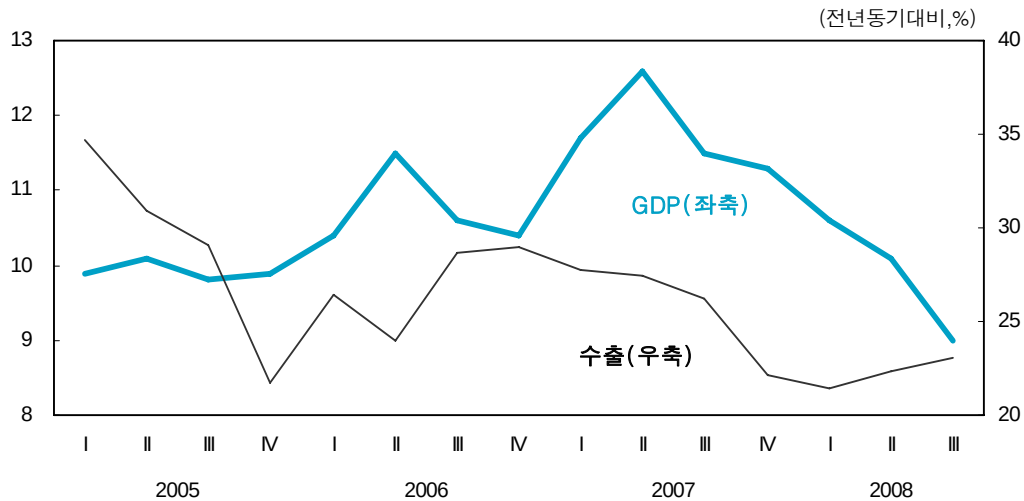
내수호조에 불구하고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해외 수요 감소로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중국당국은 긴축기조를 완화하는 모습

■ 작년 3/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금년 1~3분기 경제성장률은 9.9%를 기록

● 견조한 내수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둔화되면서 3/4분기 경제성장률은 5년 만에 최저치인 9.0%를 기록

- 내수가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수출 부진 및 수입증가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하락한데 기인
- 또한, 수출 둔화에 따른 생산 감소로 공업생산은 둔화되는 모습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



- 소매판매는 2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으며, 고정자산투자 또한 높은 증가세 유지
 - － 중국 당국이 내수확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소매판매의 증가율은 확대됨.
 - － 지진에 따른 시설 복구 및 올림픽 인프라 투자 등으로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7%이상의 높은 증가세 유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11.1	11.9	11.7	11.9	11.5	11.2	10.6	10.1	9.0
공업생산	16.6	18.6	18.3	18.7	18.9	18.5	16.4	15.9	13.0
소매판매	13.7	16.8	14.9	15.8	17.0	19.0	20.6	22.2	23.2
고정자산투자 ¹⁾	24.5	24.8	25.3	26.7	26.4	25.8	25.9	26.8	27.6
소비자물가	1.5	4.8	2.7	3.6	6.1	6.6	8.0	7.8	5.3
수출 ²⁾	27.2	25.7	27.8	27.4	26.2	22.2	21.4	22.4	23.0
수입 ²⁾	20.0	20.8	18.1	18.2	20.8	25.4	28.6	32.6	25.7
무역수지(억\$) ²⁾	1775	2619	465	663	731	760	415	582	833
M2(말잔)	16.9	16.7	17.3	17.1	18.5	16.7	16.3	15.9	16.0
주가(상해B) ³⁾	130.1	366.0	177.8	255.0	367.4	366.0	256.0	209.4	1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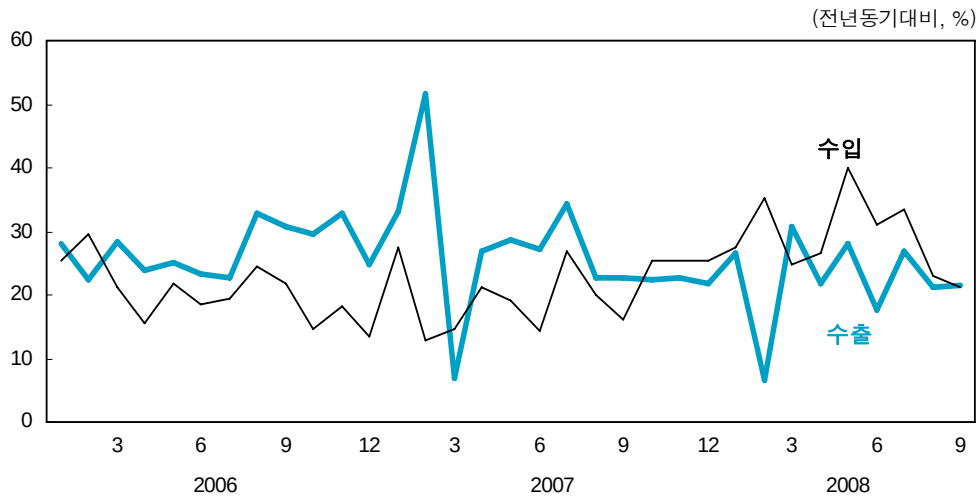
주: 1) 누계액 기준, 2) US\$ 기준, 3) 기말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상무부.

- 최근 대내외여건 악화로 수출증가율은 작년에 비해 둔화되는 모습이나 가계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의 증가세는 지속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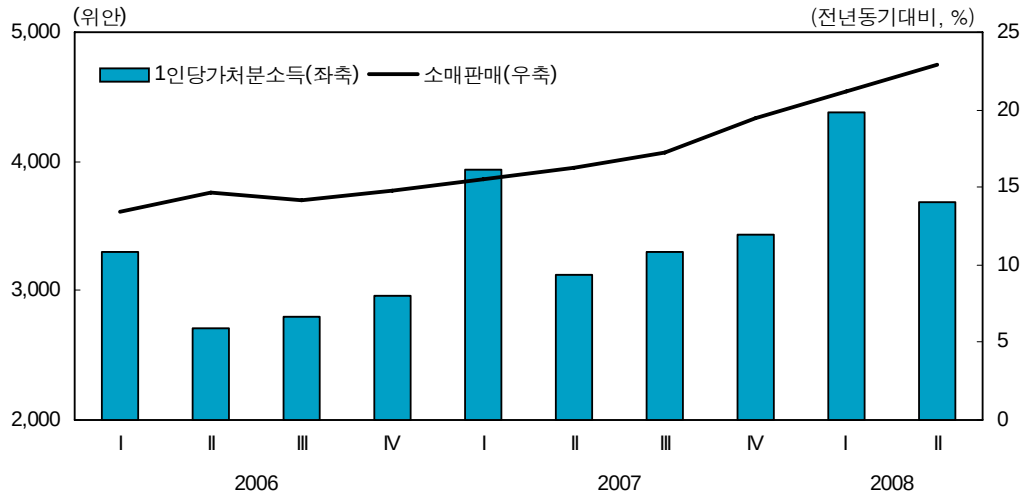
- 수출증가율은 임금 등 생산원가 상승과 주요 선진국 경제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
 - － 반면,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율이 확대되어 무역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

중국의 수출 및 수입



- 선진국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의 영향이 개발도상국에 파급되면서 수출이 크게 부진할 경우 향후 성장둔화는 불가피하며 그 결과 투자 감소 우려도 제기
 - 미국에 이어 서유럽 경기부진의 여파가 신흥국으로 확산되면서 수출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사이의 격차가 심화될 경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투자가 부진할 가능성
- 수출의 하락세가 소비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농촌지역의 소비 확대 등으로 전체 소비는 건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고용 및 소득환경을 악화시켜 소비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도시 및 농촌지역의 소득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소비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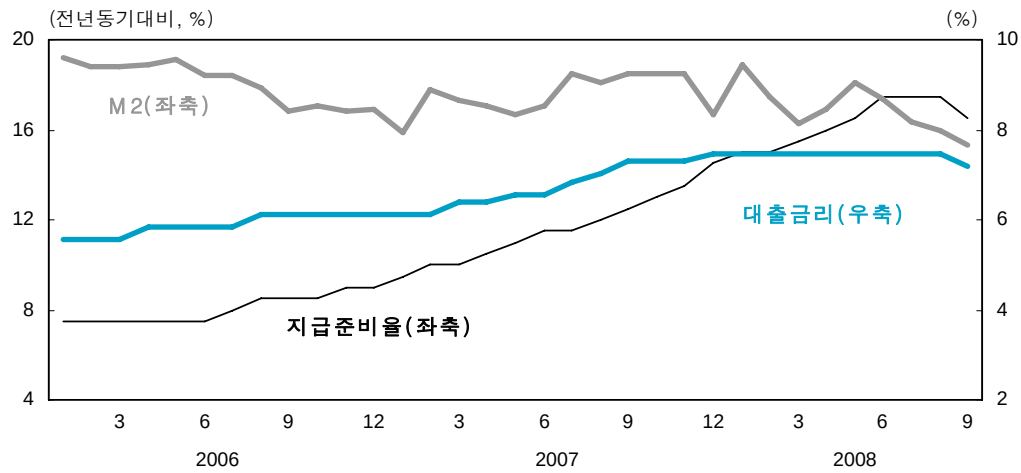
도시 가처분소득 및 소매판매



■ 금년 상반기에는 소비자물가 증가세에 기인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긴축기조를 완화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이후 차츰 둔화되어 물가안정목표치를 하회
 - － 식료품가격 상승률이 둔화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증가세가 차츰 둔화되어 9월에는 4.6%로 중국당국의 물가안정목표치를 하회함.
 - － 다만, 아직까지 생산자물가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여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상존
- 중국 당국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긴축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급준비율과 대출금리를 인하
 - －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대출금리를 7.47%에서 6.66%로 인하하고, 지급준비율은 17.5%에서 1~2%p 부분적으로 하향조정
- 통화량(M2) 증가율이 당국의 목표치를 하회하였고, 소비자물가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긴축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총통화증가율은 지난해 평균 17.5%에서 9월에는 15.3%로 점차 둔화

지급준비율 및 대출금리, 통화량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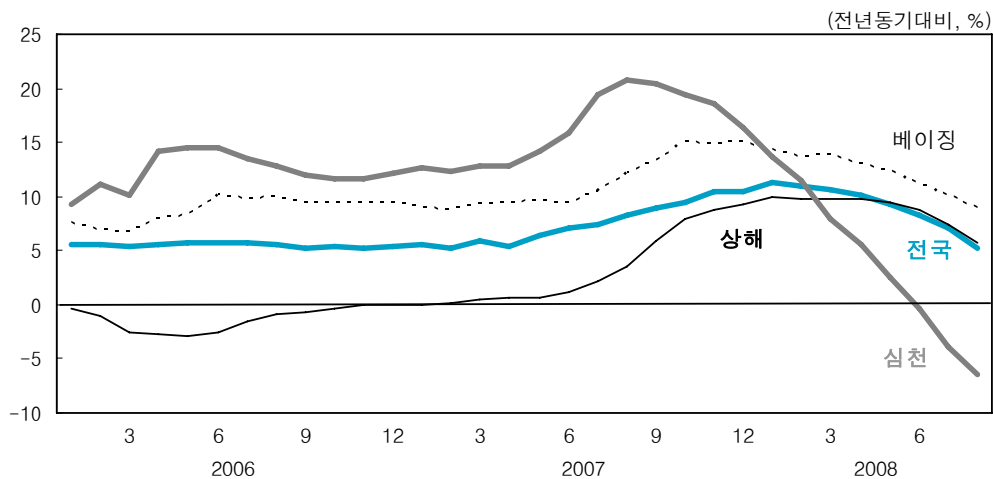


■ 한편, 지난해 말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하락세가 장기화되는 모습

● 전국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된데 이어 일부지역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전월대비로 보았을 때 선전은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하이 등도 6월 이후 하락세

도시별 주택가격상승률



- 또한, 주가지수는 2007년 정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하락함에 따라 중국당국은 증시부양책을 마련

- 긴축정책 및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실적이 둔화되어 주가는 하락세를 유지
-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작년 10월 최고점 대비 30%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중국정부는 주식매입 시 거래세를 면제하는 등의 증시부양책을 마련

- 중국 주식시장은 정부의 긴축완화 및 증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의 지속으로 주식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

- 국제금융기관들은 건조한 내수성장세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 경기둔화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에 따라 수출증가율은 둔화되어 성장률은 낮아질 전망

- IMF는 10월 경제전망에서 200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9.3%로 전망했으나, 국제금융기관들의 전망은 이보다 크게 낮은 수준

주요 국제금융기관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전기대비연율, %)

	2008		2009		2008	2009
	3/4	4/4	1/4	2/4		
Bank of America	(9.3)	(8.8)	(9.0)	(9.2)	9.8	9.1
Credit Suisse	(8.4)	(8.3)	(8.4)	(9.1)	9.3	8.8
Citigroup	-	-	-	-	9.6	8.8
Goldman Sachs	-	-	-	-	9.8	8.7
JP Morgan	7.6	8.2	9.5	9.9	9.6	8.7
Morgan Stanley	-	-	-	-	9.8	8.2
성장률 평균	7.6	8.2	9.5	9.9	9.7	8.7

주: 1) 2008년 10월말 전망 기준.

2)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국제금융센터.

3. 換率 및 金利

달러화는 엔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 강세로 전환된 가운데 주요 선진국의 장기금리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등락을 반복

■ 2007년 하반기 이후 약세를 지속하던 달러화는 세계경기 둔화 우려 및 금융 불안 지속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수요 증가 등으로 강세 전환

● 엔/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지속으로 하락세 지속

— 10월 27일 엔/달러 환율은 92.8엔으로 1995년 8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 그러나 유로/달러 환율 등 여타 통화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심화 및 세계적 경기 둔화 우려 증가로 8월 이후 상승세

엔/달러 및 유로/달러 환율



자료: 국제금융센터.

■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은 향후 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인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해 소폭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엔/달러환율의 경우 전망시점(10월)부터 3개월 후 100.1엔, 6개월 후 98.0엔, 1년 후에는 104.2엔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유로/달러환율도 전망시점(10월)부터 3개월 후 0.758유로, 6개월 후 0.753유로, 1년 후에는 0.763유로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주요 투자은행의 환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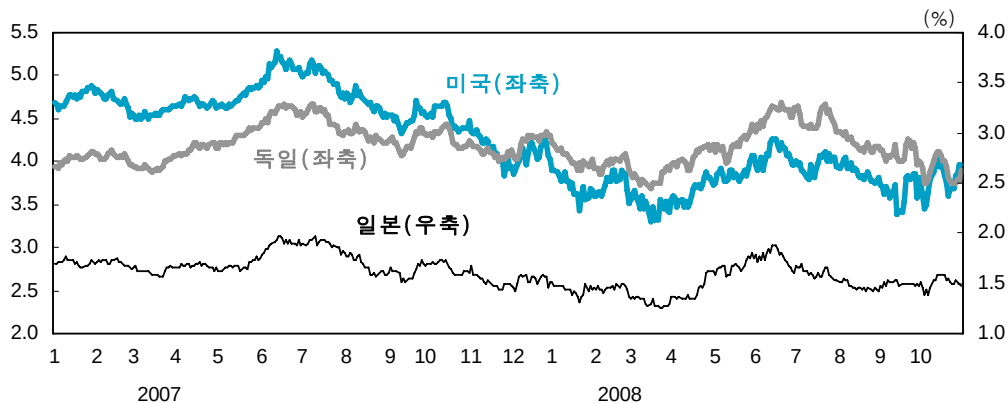
	엔/달러			유로/달러		
	3개월	6개월	1년	3개월	6개월	1년
Barclays Capital (10.23)	95.0	90.0	95.0	0.806	0.741	0.690
JP Morgan (10.24)	87.0	87.0	107.0	0.847	0.847	0.833
UBS Warburg (10.27)	105.0	-	105.0	0.741	-	0.769
Goldman Sachs (10.10)	112.0	108.0	114.0	0.690	0.667	0.714
Morgan Stanley (10.23)	96.0	96.0	104.0	0.769	0.769	0.787
Merrill Lynch (10.24)	101.0	100.0	98.0	0.694	0.704	0.725
Citi Bank (10.24)	99.6	100.0	100.8	0.772	0.774	0.805
HSBC (10.9)	105.0	105.0	110.0	0.741	0.769	0.781
평 균	100.1	98.0	104.2	0.758	0.753	0.763

자료: 국제금융센터.

■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

- 주요국의 장기국채금리(10년물)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의해 등락을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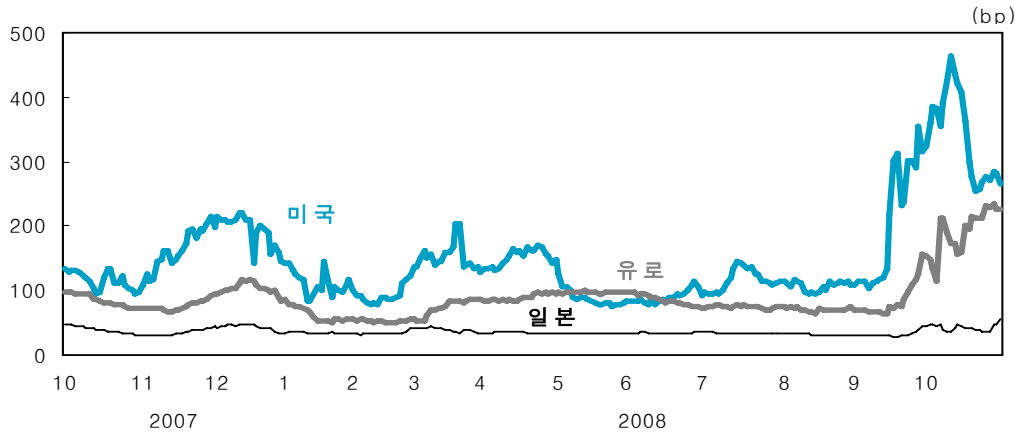
주요국 국채 수익률



-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TED 스프레드가 급등

-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각국의 대응책과 국제적 정책 공조로 리보금리가 낮아지면서 TED 스프레드가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금융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주요 선진국의 TED 스프레드



- 선진국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이 신흥국으로 확산되면서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등세를 보임.
- 또한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로 신흥국 채권 수요가 둔화되면서 신흥국의 외평채 가산금리도 급등

주요 개도국의 CDS 및 외평채 가산금리

(bp)

	CDS 프리미엄			외평채 가산금리		
	6월말	8월말	10월말	6월말	8월말	10월말
한국	103	116	375	195	193	542
중국	73	66	160	143	140	318
인도네시아	286	262	687	363	353	1045
말레이시아	109	128	230	202	197	475
필리핀	262	242	479	338	301	572
러시아	109	132	644	-	-	-

자료: 국제금융센터.

■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은 주요국의 장기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경기침체 우려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2009년 4/4분기에는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

주요 국제금융기관의 2008년 주요국 장기 금리 전망

(%)

	미국 국채(10년물)			유로화 채권(10년물)			일본 국채(10년물)		
	'08 4/4	'09 1/4	'09 2/4	'08 4/4	'09 1/4	'09 2/4	'08 4/4	'09 1/4	'09 2/4
Bank of America	3.60	3.60	3.80	4.10	4.20	-	1.38	1.40	-
Credit Suisse	3.50	3.25	3.50	3.75	3.65	3.65	1.25	1.35	1.80
JP Morgan	3.40	3.45	3.45	3.70	3.55	3.50	1.60	1.60	1.80
Merrill Lynch	3.35	3.00	2.90	3.50	-	3.55	1.63	-	1.79
UBS	3.60	3.80	4.10	3.90	3.70	3.50	1.60	-	-
평 균	3.49	3.42	3.55	3.79	3.78	3.55	1.49	1.45	1.80

자료: 국제금융센터.

4. 原資材와 半導體 價格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국제유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역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국제유가(두바이 기준)는 7월 중 배럴당 140.7달러까지 급등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전환

●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석유수요 둔화와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유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자금 유출로 인해 하락세 지속

－ 10월 들어서도 급락세를 보이며 10월말 현재 배럴당 55달러로 월초 대비 42% 하락하였으며, 최근 경기침체 및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달러인덱스 및 유가



주: 달러인덱스는 달러화의 국제적인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6개 주요통화의 거래 환율을 가중하여 계산한 수치임.
자료: 국제금융센터.

유가

(달러/배럴, 평균기준)

	2006	2007	2008							
	12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두바이	58.7	85.7	96.9	103.6	119.5	127.9	131.3	113.0	96.3	67.7
브렌트	62.6	91.0	104.2	108.9	122.7	132.7	133.6	113.5	98.2	72.0
서부텍사스	62.0	91.3	105.4	112.6	125.4	133.9	133.4	116.6	103.7	76.6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 주요 석유분석 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2009년에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 석유시장 전문기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석유수요 둔화를 반영하여 2009년 국제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

주요 기관 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07년 평균	2008년 평균	2009년					비고
				1/4	2/4	3/4	4/4	평균	
CGES (10월)	Brent	72.9	102.5 (99.3)	63.5	65.9	64.9	-	63.1	기준유가
		72.9	102.5 (110.2)	65.2	74.2	87.4	-	82.7	고유가
		72.9	101.7 (92.8)	57.0	54.6	46.0	-	47.5	저유가
CERA (10월)	Dubai	68.5	102.1 (89.8)	89.0	85.0	83.0	87.0	86.0	기준유가
	Brent	72.5	106.3 (93.1)	93.0	89.0	87.0	91.0	90.0	
	WTI	72.2	107.5 (94.5)	94.0	90.0	88.0	92.0	91.0	
	Dubai	68.5	104.6 (105.3)	107.0	104.0	100.0	101.0	103.0	고유가 (공급 부족)
	Brent	72.5	108.8 (108.5)	111.0	108.0	104.0	105.0	107.0	
	WTI	72.2	110.0 (110.7)	112.0	109.0	105.0	106.0	108.0	
	Dubai	68.5	99.9 (77.4)	76.0	74.0	72.0	70.0	73.0	저유가 (수요감소)
	Brent	72.5	104.1 (80.6)	80.0	78.0	76.0	74.0	77.0	
	WTI	72.2	105.3 (81.7)	81.0	79.0	77.0	75.0	78.0	
EIA (10월)	WTI	72.3	111.6 (100.6)	114.0	118.3	109.7	106.0	112.0	기준유가
PIRA (10월)	Brent	72.5	99.7 (108.4)	66.7	69.0	77.6	84.8	74.5	기준유가
	WTI	72.3	102.1 (107.2)	68.0	70.4	78.7	86.0	75.8	

주: 1) CGES: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CERA: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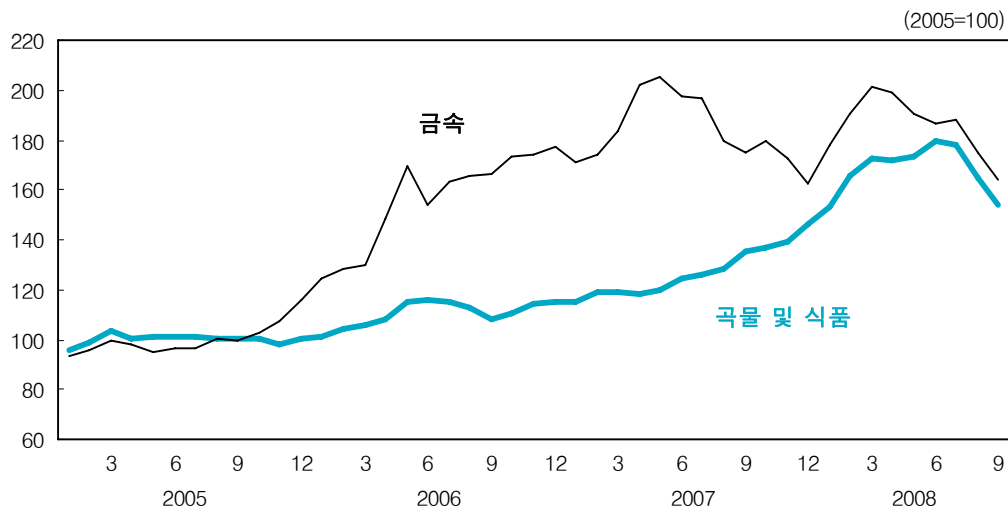
2) 2008년 ()안의 수치는 2008년 5월 전망시점의 유가전망치임.

자료: 석유정보망.

■ 2008년 하반기 중 원자재가격은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

- 로이터상품지수는 10월말 현재 2,012를 기록하여 7월말 대비 26.8% 하락
- 기초금속 가격은 선진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곡물가격 역시 중국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증가 전망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지속

식품 및 금속가격 지수



자료: IMF.

로이터 및 CRB지수

(지수, 평균기준)

	2006	2007	2008							
	12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로이터지수 ¹⁾	2,229	2,593	2,803	2,728	2,658	2,846	2,750	2,676	2,387	2,012
CRB지수	311.1	349.4	404.3	409.2	422.3	445.1	438.7	394.2	361.3	288.9

주: 1) 로이터지수는 기간말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 반도체(1Gb DDR2 기준) 현물가격은 하락세 지속

● 반도체 가격은 공급과잉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지속

- SD램 가격((1Gb DDR2, 아시아 현물시장 기준)은 현재(10월말 기준) 개당 0.98달러로 9월말 대비 22.2% 하락
- 낸드 플래시 메모리(4Gb) 가격 역시 9월에 비해 5.1% 하락

반도체 현물가격

(달러/개, 기말기준)

	2006	2007	2008							
	12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Gb DDR2 SD램	-	1.90	-	-	2.13	2.07	1.89	1.66	1.26	0.98
4Gb NAND Flash	6.06	4.41	2.80	2.87	2.69	2.46	2.41	2.35	2.36	2.24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